

조선후기의 목조정화에 대하여 (朝鮮後期 木彫幀畫에 對하여)

洪 潤 植

(圓光大學校 教授)

一. 서 언(序 言)

조선후기(朝鮮後期)의 목조정화(木彫幀畫) 오폭(五幅)이 전(傳)하는바 실상사약수암목조정화(實相寺藥水庵木彫幀畫), 상주남장사보광전목조정화(尙州南長寺普光殿木彫幀畫), 상주남장사관음선원목조정화(尙州南長寺觀音禪院木彫幀畫), 문경대승사대웅전(聞慶大乘寺大雄殿)목조정화(木彫幀畫), 서울경국사극락보전(慶國寺極樂寶殿)목조정화(木彫幀畫)가 그것이다. 이중 실상사(實相寺)의 목조정화(木彫幀畫)는 보물(寶物) 421號로 지정(指定)되어있고 남장사관음선원목조정화(南長寺觀音禪院木彫幀畫)는 경상북도(慶尙北道)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58號로 지정(指定)되어 있으나 나머지 삼폭(三幅)은 지정(指定)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들 오폭(五幅)의 목조정(木彫幀)은 모두가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인데 우선 주목(注目)을 끌게 한다. 그러나 실상사(實相寺)목조정화(木彫幀畫)의 지정보고(指定報告)나 남장사관음선원(南長寺觀音禪院)의 보고서(報告書)는 이들 정화(幀畫)의 내용(內容)과 성격(性格)을 밝혀 놓고 있지 않고 단지 주존불(主尊佛)을 중심(中心)으로 한 목조정화(木彫幀畫)라고만 하고 있다. 여기 본고(本稿)에서는 현존(現存) 목조정화(木彫幀畫)는 모두가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라는 점(點)과 또한 목조정화(木彫幀畫)로서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가 지니는 성격(性格)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二. 목조정화(木彫幀畫)의 구도(構圖)

1. 실상사약수암 목조정화(實相寺藥水庵 木彫幀畫)

이 정화(幀畫)는 높이 171cm 폭이 183cm의 목조정화(木彫幀畫)이며 정화하부(幀畫下部)의 연화질(緣化秩)에 『乾隆四十七年壬寅十一月□□山實相寺□□□諸佛□□□諸□□□幀』이라는 명문(銘文)을 남기고 있어 그 제작연대(製作年代)가 1782년(조선조(朝鮮朝) 정조(正祖) 6년)임을 알수 있다. 정화(幀畫)의 구도(構圖)는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중심(中心)으로 팔대보살(八代菩薩)과 이존자(二尊者)를 일매(一枚)의 목판(木板)에 조각(彫刻)하였다. 주존불(主尊佛)인 아미타여래상(阿彌陀如來像)은 판면(板面)에서 약간 두드러지게 나와 있고 연화대(蓮花臺)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좌상(座像)으로 무릎 밑에 의문(衣紋)을 길게 늘여지도록 하였음이 특이(特異)하고 불신(佛身)이나 법의(法衣)의 표현(表現)은 조선후기(朝鮮後期)불상(佛像)의 통례(通例)를 따르고 있다. 배후(背

後)에는 연화(緣化)를 3중(三重)으로 들린 거신광배(擧身光背)가 있고 그 위에는 양련(仰蓮)위에 좌상화불입상(座像化佛)입상화불(立像化佛) 좌상화신(座像化身)의 순(順)으로 화불(化佛)을 上下로 배치하여 상단에 이르게 하고 있다. 구도(構圖)는 상하이단(二段)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단(下段)은 주존(主尊)인 아미타여래상(阿彌陀如來像)·左右에 각각(各各) 2보살(二菩薩)씩 4보살(四菩薩)을 배치(配置)하였으며 안쪽 좌우(左右)에는 좌(左)에 관음(觀音) 우(右)에 대세지(大勢至) 그 바깥쪽 좌우(左右)에 문수(文殊) 보현(普賢)을 배치(配置)하여 안쪽의 관음(觀音) 세지(勢至)는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의 좌우협시(左右脇侍)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정화(本幀畫)의 지정(指定)보고서(報告書)는 하단(下段)의 주존(主尊) 가까이 안쪽 좌우보살(左右菩薩)을 문수(文殊) 보현(普賢)으로 보고 따라서 주존(主尊)의 불명(佛名)도 밝혀 놓지 않고 있다.¹⁾ 이것은 분명(分明)히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주존(主尊) 가까이의 향우측(向右侧) 보살상(菩薩像)은 오른손에 정병(淨瓶)을 들고 있어 관음보살(觀音菩薩)임이 틀림없고 따라서 향좌(向左侧)의 보살(菩薩)은 보현(普賢)이 아닌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되기 때문이다. 상단(上段)은 사보살상(四菩薩像)과 이존자상(二尊者像)을 배치(配置)하고 있는데 주존(主尊)인 아미타여래상(阿彌陀如來像) 바로 위에 상하(上下)로 배치(配置)한 화불(化佛) 좌우(左右)에 향석(向石)에는 가엽존자(迦葉尊者) 향좌(向左侧)에는 아난존자(阿難尊者)를 배치(配置)하고 아난(阿難) 향좌(向左侧)의 두 보살중(菩薩中) 바깥쪽의 보살상(菩薩像)은 비구형(比丘形)의 상(像)에 오른손에 보주(寶珠)를 들고 왼손에 석장(錫杖)을 잡고 있으므로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임에 틀림없고 나머지 삼보살상(三菩薩像)은 그 배치를 분명(分明)히 밝힐 수는 없으나 미륵보살(彌勒菩薩) 금강장보살(金剛杖菩薩) 제장애보살상(除障礙菩薩像)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주존(主尊)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의 협시(脇侍)가 관음(觀音) 세지(勢至)이며 이 같은 협시불(脇侍佛)과 더불어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참여하는 팔대보살(八代菩薩)은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가 지니는 구도(構圖)이며 이때의 팔대보살(八代菩薩)은 관음세지(觀音勢至) 문수(文殊) 보현(普賢) 미륵(彌勒) 지장(地藏) 금강장(金剛藏)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이기 때문이다.²⁾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상단(上段) 가엽존자(迦葉尊者)의 바깥쪽 향우(向右侧)의 보살(菩薩)은 미륵보살(彌勒菩薩)이며 안쪽 보살은 금강장보살(金剛杖菩薩)이며 아난존자(阿難尊者) 향좌(向左侧)의 안쪽 보살(菩薩)은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임에 틀림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정보고서(指定報告書)는 금강장보살(金剛杖菩薩)과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을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로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견해(見解)이다. 왜냐하면 일광(日光) 월광보살(月光菩薩)의 상호(相好)는 보관에 일광(日光)과 월광(月光)을 나타냄을 원칙으로 할뿐 아니라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일광(日光) 월광(月光) 양보살(兩菩薩)이 참여한 용례(用例)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³⁾ 그리하여 이 지정보고서(指定報告書)는 주존(主尊)의 성격(性格)도 밝혀내지 못하고 따라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일광(日光) 월광보살명(月光菩薩名)을 붙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살상(菩薩像)과 존자상(尊者像)은 모두 입상(立像)이고 양련(仰蓮)위에 서있다. 그리고 제상(諸相)의 사이사이에는 연뢰(蓮雷)가 솟아 있고 상부(上部)의 네곳 연뢰(蓮雷)에는 화불(化佛)이 조각(彫刻)되어 있다. 조각(彫刻)의 수법(手法)은 대체로 조선조(朝鮮朝) 후기(後期)의 수법(手法)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호(相好)가 수승(殊勝)하고 정교한 미(美)를 나타내고 있다.



實相寺藥水庵 木彫幀畫

실상사약수암 목조정화 (實相寺藥水庵 木彫幀畫)



實相寺藥水庵 木彫幀畫

실상사약수암 목조정화(實相寺藥水庵 木彫幀畫)

원래(元來) 이 정화(幀畫)는 실상사약수암보광전후불정화(實相寺藥水庵普光殿後佛淨畫)로 보존(保存)되어 있었으나, 현재(現在)에는 그 보존상(保存上)의 이유(理由)로 법당(法堂)에 위치(位置)하지 못하고 요사(寮舍)에 보관(保管)되어있다. 그런데 원래(元來) 이 정화(幀畫)가 보광전후불정화(普光殿後佛淨畫)였다는 점(點)은 무엇인가 의미(意味)를 갖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점(點) 다시 후술(後述) 하기로 한다.

2. 南長寺普光殿 木彫幀畫(남장사보광전 목조정화)

명문(銘文)이 없어 확실한 연대(年代)는 알 수 없으나 그 조각(彫刻)의 수법(手法)이 실상사(實相寺)의 것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현재(現在) 보광전비로사나불후불정화(普光殿毘盧舍那佛後佛淨畫)로 봉안(奉安)되어 있고 그 크기는 높이 184cm 폭이 196cm이다. 제작자(製作者)도 알 수 없으며 오래지 않은 전일(前日)에 기금(改金)하였다고 한다.



남장사보광전 목조정화(南長寺普光殿 木彫幀畫)

정화(幀畫)의 구도(構圖)는 본존(本尊)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좌상(座像)을 중심(中心)으로 십대보살(十大菩薩)과 십대제자(十大弟子) 사천왕(四天王)으로 구성(構成)되고 이들 각상(各像)을 사단(四段)으로 배치(配置)하여 형성(形成)하였다. 중심부(中心部)에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좌상(座像)으로 배치(配置)하고 광배(光背)는 붉은 칠로 단청(丹青)하였으며 그 상부(上部)에 방광(放光)을 나타내어 최상단(最上段) 끝에 이르러 좌우(左右)로 퍼지게 하고 있다. 사단중(四段中) 최하단(最下段)은 주존(主尊)인 아미타상(阿彌陀像) 좌대(座臺) 하부(下部)에 배치(配置)하였고 향우(向右)의 바깥쪽에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나란히 2위(二位) 배치하고 안쪽의 보살입상(菩薩立像)(문주(文殊))을 배치(配置)하였다. 향좌(向左)의 바깥쪽에도 사천왕상(四天王像) 2위(二位) 그 안쪽에 보살입상(菩薩立像)(보현(普賢))을 1위(一位) 배치하고 있다. 그 상단(上段)에는 아미타상(阿彌陀像) 바로 좌우(左右)에 좌상(座像)으로 관음(觀音) 세지(勢至)를 배치하였는데

여기 주목(注目)을 끄는 것은 다른 상(像)은 모두 입상(立像)인데 주존(主尊)인 아미타상(阿彌陀像)과 협시(脇侍)인 관음(觀音) 세지(勢至)만 좌상(座像)으로 하고 있다는 점(點)이다. 이는 본도설(本圖說)이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와 관음(觀音) 세지(勢至)를 협시(脇侍)로 하는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음(觀音)의 향우(向右)에는 안쪽에 보살입상(菩薩立像) 1위(一位) 바깥쪽에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 1위(一位)를 나타내고 세지(勢至)의 향좌(向左)에 보살입상(菩薩立像) 1위(一位)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 1위(一位)를 배치(配置)하여 제이단(第二段)을 이룩하였다. 제삼단(第三段)은 아미타상(阿彌陀像) 광배(光背) 좌우(左右)에 안쪽으로 보살상(菩薩像) 각각 2위(二位) 바깥쪽에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 각각 이위(二位)를 배치하였다. 제사단(第四段)인 최상단(最上段)은 방광(放光) 좌우(左右)에 각각 3위(三位)씩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을 배치(配置)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위(四位)의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중(中) 방광(放光)의 가장 안쪽 좌우상(左右像)은 향우(向右)가 가엽(迦葉), 향좌(向左)가 아난상(阿難像)임을 틀림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다른 상(像)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도합(都合) 10위(十位)의 성문제자상중(聲聞弟子像中) 가엽(迦葉)과 아난(阿難)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10위(十位)의 상(像)은 십대제자상(十大弟子像)을 표현(表現)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으로 남는 것은 본도설(本圖說)이 10대보살상(十大菩薩像)을 배치(配置)하고 있다는 점(點)이다. 일반적(一般的)인 아미타도설(阿彌陀圖說)의 경우 팔대보살(八代菩薩)을 넘지 않으며 또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2대보살명(二大菩薩名)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본정화(本幀畫)가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임에 틀림없다는 것은 전술(前述)한 바이나 그럴 경우 아미타도설(阿彌陀圖說)의 용례(用例)에 따라 팔대보살(八代菩薩)은 그 명칭이 밝혀질 수 있으나⁴⁾ 나머지 2보살상(二菩薩像)은 제석(帝釋) 대범(大梵)이거나 아니면 본정화(本幀畫)의 구성(構成)이 각상(各像)을 6위(六位)씩 4단(四段)으로 한데서 오는 십대보살(十大菩薩)이라 생각되어진다. 보살상(菩薩像)은 모두 보관(寶冠)을 쓰고 화지(花枝)를 들었으나 1위(一位)만 합장(合掌)을 하고 있으며 아미타도설(阿彌陀圖說)의 경우 지장보살(地藏菩薩)이 배치(配置)되는 것이 통례(通例)인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미타팔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로도 이형(異形)인 것이다.

본(本) 도설(圖說)의 특징(特徵)은 26위(二十六位)의 제존(諸尊)을 육위(六位)씩 사단(四段)으로(廬) 배열(配列)하고 있는데 이중 최상단(最上段)과 좌우(左右)의 외방(外方)은 모두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이며 최하방(最下方)도 좌우(左右)의 외방(外方)은 사천왕상(四天王像) 사위(四位), 그 중앙(中央)에 보살상(菩薩像) 2위(二位)를 배열(配列)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제존(諸尊)의 배열(配列)은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과 4천왕(四天王)은 외방(外方)으로 하고 주존(主尊)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중심(中心)으로 안쪽에는 보살상(菩薩像)을 배열(配列)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일종(一種)의 만다라적(曼荼羅的) 성격(性格)을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각상(各像)은 모두 광배(光背)를 지니고 있으며 상(像)과 상(像)사이에는 연뢰(蓮雷)가 솟아 있음은 실상사(實相寺)의 것과 같다.



남장사보광전 목조정화 세부(南長寺普光殿 木彫幀畫 細部)

3. 南長寺觀音禪院 木彫幀畫(남장사관음선원 목조정화)

관음전(觀音殿) 관음상(觀音像)의 후불정화(後佛幀畫)로 봉안(奉安)되고 있으나 이 정화(幀畫)는 주존(主尊)이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인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이다. 연대(年代)와 제작자(製作者)도 알 수 없으나 현재(現在) 경상북도(慶尙北道)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第58號로 지정(指定)되어 있으며 그 지정보고서(指定報告書)에는 제작연대(製作年代)가 1694년(숙종(肅宗) 20년)이라 하고 있다. 이 연대(年代)의 고증(考證)은 사찰 재산대장(寺刹財産臺帳)에 의한 것이라 하나 확인(確認)되지 않고 있다. 크기는 높이 165cm 폭이 184cm이다. 도설(圖說)의 구도(構圖)는 주존(主尊)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중심(中心)으로 사대보살상(四大菩薩像) 가엽(迦葉) 아난(阿難) 사천왕(四天王)으로 구성(構成)하고 있다. 중앙(中央)에 아미타(阿彌陀)의 수인(手印)을 결(結)한 주존(主尊)을 좌상(座像)으로 배열(配列)하고 있고 그 좌우(左右)에 2단(二段)으로 사대보살(四大菩薩)을 배열하였는데 하단좌우(下段左右)의 보살(菩薩)은 관음(觀音) 세지(勢至)이다. 이 중(中) 향우(向右)의 보살(菩薩)은 화지(花枝)에 보병(寶瓶)을 얹어 들고 있어 관음보

살(觀音菩薩)임을 알 수 있다. 상단(上段) 보살상(菩薩像)의 좌우(左右)에는 가엽아난(迦葉阿難)을 배열하고 그 좌우(左右) 상하(上下)에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배열(配列)하고 있다. 본존(本尊) 주형광배(舟形光背)의 상부(上部)에는 방광(放光)을 좌우(左右)로 퍼지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 서운(瑞雲)을 조각하고 그 위에 좌우(左右)로 화불(化佛) 삼위(三位)씩을 좌상(座像)으로 조각하고 있다. 관음(觀音) 세지보살(勢至菩薩)은 보병(寶瓶)과 화지(花枝)를 들었으나, 다른 2보살(二菩薩)과 가엽(迦葉) 아난(阿難)은 합장(合掌)하고 있다. 그런데 본(本) 목조정화(木彫幀畫) 구도(構圖)의 특이(特異)한 점(點)은 최하방(最下方) 전부분(全部分)에 연화(緣化)를 조각하여 그 바탕 위에 이 정화(幀畫)를 놓고 있는 수법(手法)을 쓰고 있다. 즉(卽) 다시 말하면 연화세계(蓮花世計)를 전체적인 좌대(座臺)로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상방(上方)에는 좌우(左右)와 중간지점(中間地點)에 업경대(業鏡臺)를 조각하여 배열하고 있음도 특이(特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재(木材)는 전단목(梅段木) 향나무를 쓰고 있으며 일매(一枚)의 목판(木板)에 제상(諸像)을 조각하고 있다.

]



南長寺觀音禪院 木彫幀畫

남장사관음선원 목조정화(南長寺觀音禪院 木彫幀畫)



南長寺觀音禪院 木彫幀畫

남장사관음선원 목조정화(南長寺觀音禪院 木彫幀畫)



南長寺觀音禪院 木彫幀畫

남장사관음선원 목조정화(南長寺觀音禪院 木彫幀畫)



남장사관음선원 목조정화(南長寺觀音禪院 木彫幀畫)

4. 大乘寺大雄殿 木彫幀畫(대승사대웅전 목조정화)

이 정화(幀畫)는 원래(元來) 영주부석사무량수전(榮州浮石寺無量壽殿)에 있던 것이라 한다. 현재(現在)에 대승사대웅전후불정화(大乘寺大雄殿後佛幀花)로 봉안(奉安)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웅전석가여래(大雄殿釋迦如來)의 후불정화(後佛幀畫)로는 맞지 않는다. 제작자(製作者)와 연대(年代)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후기(朝鮮後期) 목조정화(木彫幀畫)의 다른 작품(作品)과 그 수법(手法) 등으로 보아 거의 같은 연대(年代)의 것으로 추측된다. 크기는 높이 335cm 폭이 272cm로 현존(現存) 목조정화(木彫幀畫)로는 가장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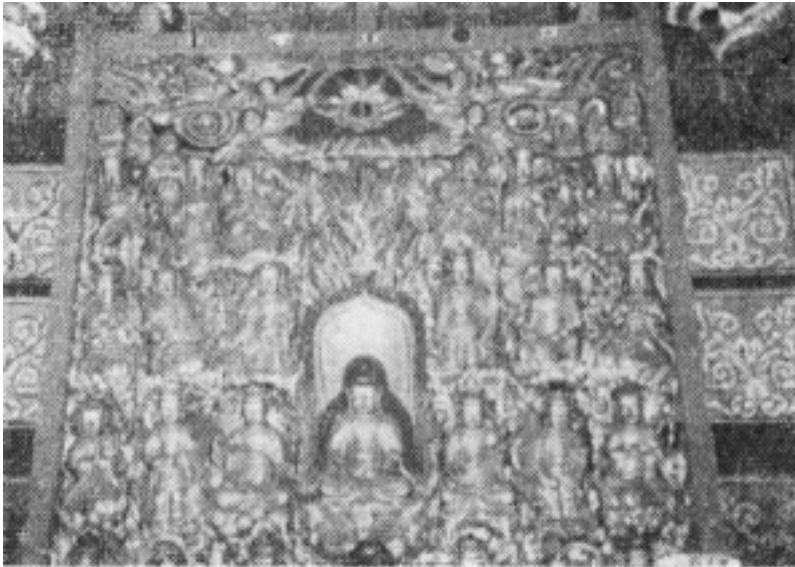
도설(圖說)의 구도(構圖)는 주존(主尊)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중심(中心)으로 24위(二十四位)의 제존상(諸尊像)을 4단구도(四段構圖)를 형성(形成)하게 하고 있다.



大乘寺大雄殿 木彫幀畫

대승사대웅전 목조정화(大乘寺大雄殿 木彫幀畫)

중앙(中央)에는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의 수인(手印)을 결(結)한 주존(主尊)이 양련(仰蓮)의 연화좌(蓮華坐)에 좌상(座像)으로 안치(安置)되고 광배(光背)는 보주형(寶舟形)으로 하였으나 다시 그 안쪽 상(像) 가까이 붉은색의 광배(光背)를 표시(標示)하고 두 광배는 푸른띠를 두르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존(主尊)인 아미타여래상(阿彌陀如來像)은 다른 상(像)에 비(比)하여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오게 하고 있다. 광배(光背) 윗 부분에는 황(黃)·적(赤)·청선(靑線)으로 방광(放光)을 나타내어 도설(圖說)의 상부(上部)에 이르게 하고 상부(上部)에 이르러서는 이 방광(放光)을 좌우(左右)로 퍼지게 하였는데 중심부분(中心部分)에는 보개(寶蓋)를 표현(表現)하고 그 안에 『제일비파시불(第一毘波尸佛)』이란 명문(銘文)으로 과거불(過去佛)을 표현(表現)하고 있다. 방광(放光) 좌우(左右)에는 각각(各各) 삼위(三位)씩의 화불(化佛)을 배열(配列)하고 그 상부(上部)에는 또 각각 좌우(左右)에 비천상(飛天像)을 배열(配列)하여 도설(圖說) 상부구조(上部構造)를 이루었다. 사단(四段)으로 된 제존상(諸尊像)은 최상단(最上段)은 중앙(中央)의 빙광(氷光)을 중심(中心)으로 향우(向右)에 제일 안쪽부터 부나존자(富那尊者) 일광천자(日光天子) 난타용왕(難陀龍王)의 순(順)으로 배열(配列)하였고 향좌(向左)는 수보제존자(須菩提尊者) 월광천자(月光天子) 발난타용왕순(跋難陀龍王順)으로 배열(配列)하고 있다. 제2단(第二段)은 주존광배(主尊光背)의 좌우(左右)에 배열(配列)하고 있는데 향우(向右)는 안쪽부터 미륵보살(彌勒菩薩), 사리불(舍利佛), 대범천왕(大梵天王), 향좌(向左)는 지장보살(地藏菩薩), 목건연(目捷連), 제석천왕(帝釋天王)의 순(順)으로 배열(配列)하였으며 제삼단(第三段)은 주존(主尊) 좌우(左右)에 배열(配列)하였는데 향우(向右)는 관음보살(觀音菩薩), 금강보살(金剛菩薩), 가엽존자(迦葉尊者)의 순(順)으로 향좌(向左)는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 아난존자(阿難尊者)의 순(順)으로 배열하였다. 최하단(最下段)인 제1단(第一段)은 주존(主尊) 좌대(座臺) 좌우(左右)에 배열(配列)되었는데 주존(主尊)의 좌대(座臺)는 연화좌(蓮華坐) 하부(下部)에 수미단(須彌壇)을 이룩하였다. 수미단(須彌壇)에는 명문(銘文)이 있는데 최상부(最上部)에는 진(辰)·사(巳)·오(午)·미(未)·신시(申時)등으로 시간(時間)을 표시(表示)하고 그 아래쪽에는 수륜(水輪), 화륜, 지륜(地輪), 등을 표시(表示)하였으며 맨 아래쪽에는 수방(水方), 적방(赤方), 목방(木方)등의 방위(方位)를 표시하고 있다.



大乘寺大雄殿 木彫幀畫 細部

대승사대웅전 목조정화 세부(大乘寺大雄殿 木彫幀畫 細部)

최하단(最下段) 제존상(諸尊像)의 배열(配列)은 향우(向右)는 안쪽부터 문수보살(文殊菩薩), 동방제두뢰타천왕(東方提頭賴陀天王)(持國天王), 북방비사문천왕(北方毗沙門天王) 다문천왕(多聞天王)의 순(順)으로 향좌(向左)는 보현보살(普賢菩薩), 남방비로륵천왕(南方毗盧勒天王) 증장천왕(增長天王), 서방비루파차천왕(西方毗樓婆叉天王)황목천왕(廣目天王)의 순(順)으로 배열(配列)하고 있다.

이상(以上)이 이 정화(幀畫)에 있어 제존상(諸尊像)의 배치도(配置圖)이나 이들 제존상(諸尊像)에는 각각(各各) 그 명칭(名稱)을 붙이고 있어 그 확실(確實)한 존상명(尊像名)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각존상(各尊像)에 명칭(名稱)을 붙이고 있는 아미타도(阿彌陀圖)는 천은사극락전(天隱寺極樂殿)의 아미타후불정화(阿彌陀後佛幀畫)에서도 찾아 볼 수 있어 이 양자(兩者)의 비교연구(比較研究)가 필요(必要)하고 또한 이들을 통(通)하여 아미타도(阿彌陀圖)의 제존상(諸尊像)의 명칭(名稱)과 그 배열(配列)의 위치(位置)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정화(幀畫)의 제존(諸尊)은 결국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중심(中心)한 아미타제존도(阿彌陀諸尊圖)란 것이 분명(分明)한데 그 제존(諸尊)은 관음(觀音) 세지(勢至)를 비롯한 팔대보살(八代菩薩)⁶⁾ 가엽아난(迦葉阿難)등의 석가(釋迦) 십대제자(十大弟子)중 육대제자(六大弟子) 사천왕(四天王) 제석대범(帝釋大梵) 양대천왕(兩大天王) 일광(日光) 월광(月光)의 양대천자(兩大天子) 이대용왕(二大龍王)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그런데 본도설(本圖說)에서 특(特)히 주목(注目)을 끄는 것은 제존상(諸尊像)의 최하방(最下方)에 거대(巨大)한 연화(緣化)를 조각(彫刻)하여 본도설(本圖說)을 그 연화(緣化)위에 얹어 놓고 있는 듯한 수법(手法)을 쓰고 있다. 남장사관음선원(南長寺觀音禪院)의 목조정화(木彫幀畫)의 예(例)에도 이 같은 구도(構圖)는 찾아 볼 수 있었으나 대승사(大乘寺)의 것은 그 연화(緣化)에 극락구품(極樂九品)을 각각(各各) 명문(銘文)으로 표시(表示)하고 있다는 점(點)이 특이(特異)하다.⁷⁾ 그 배열(配列)을 보면 상품(上品)은 중앙(中央)에, 중품(中品)은 향우(向右)에, 하품(下品)은 향좌(向左)에 배치(配置)하고 있고 다시 상상품(上上品)은 상품(上品)의 중앙(中央)에, 상중(上中)은 그 향우(向右)에,

상하(上下)는 그 향좌(向左)에 배치하고 중품(中品)은 중상품(中上品)을, 상중품(上中品) 향우(向右)의 상방(上方)에 그리고 그 아래에 중하품(中下品)을 배열(配列)하고 중중품(中中品)은 상하품(上下品)의 향좌(向左) 상방(上方)에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하상품(下上品)을 두고 그리고 그 향좌(向左)에 하하품(下下品)을 두었으며 하중품(下中品)은 중상품(中上品)의 향우(向右) 아래에 배열하고 있다. 이들 극락구품(極樂九品)의 연화상(緣化像)의 표현(表現)은 그 위치(位置)도 간과(看過)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연화(緣化)의 상태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다. 즉(卽) 상품(上品)은 연화(緣化)가 만개(滿開)한 상태로 중품(中品)은 반개(半開)한 상태, 하품(下品)은 연화(緣化)봉오리만 나타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무튼 본도설(本圖說)에 극락구품(極樂九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 목조정화(木彫楨畫)가 아미타도(阿彌陀圖)임을 나타내는 보다 확실(確實)한 근거(根據)를 제시(提示)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존상중(諸尊像中) 주존(主尊)과 그 협시(脇侍)인 관음(觀音) 세지(勢至)는 모두 좌상(座像)이고 다른 6대보살(六大菩薩)은 입상(立像)이나 제자상(弟子像)은 반좌(半座)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제상(諸像)은 모두 연화좌(蓮華坐)를 갖고 있으며(快然) 화지(花枝) 석장(錫杖)등의 지물(持物)을 갖거나 아니면 합장(合掌)하고 있다. 각상(各像) 사이에는 연뢰(蓮雷)가 솟아 있는데 이는 다른 목조정화(木彫楨畫)에서도 다 같이 나타내고 있는 목조정화(木彫楨畫)의 공통적(共通的)인 수법(手法)이다.



大乘寺 木彫楨 各尊像 配置圖

대승사 목조정 각존상 배치도(大乘寺 木彫楨 各尊像 配置圖)

5. 서울 경국사극락전 목조정화(서울慶國寺極樂殿 木彫幀畫)

서울 정릉(貞陵) 경국사(慶國寺)의 극락보전(極樂寶殿)에는 주존불(主尊佛)로 석가여래삼존상(釋迦如來三尊像)이 봉안(奉安)되어있고 그 후불정화(後佛幀畫)로 아미타목각정화(阿彌陀木刻幀畫)가 봉안(奉安)되어 있다. 전각명(殿閣名)이 극락보전(極樂寶殿)인 것으로 보아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가 주존(主尊)이 되어야 하겠으나 석가(釋迦)가 주존(主尊)이 되어 있음은 후일(後日)에 불상(佛像)이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 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미타정화(彌陀幀畫)는 원래(元來)부터 전각(殿閣)에 맞는 정화(幀畫)로 보존(保存)되어온 것이라 할것이다. 따라서 경국사극락보전(慶國寺極樂寶殿)의 본존(本尊)은 불상(佛像)보다는 이 목조정화(木彫幀畫)라 할 수 있다.

이 정화(幀畫)의 크기는 높이 177cm 폭이 176cm 이며 연대(年代)와 제작자(製作者)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기(前記) 여타(餘他)의 목조정화(木彫幀畫)와 거의 같은 연대(年代)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⁸⁾ 도설(圖說)의 구도(構圖)는 중앙(中央)에 주존(主尊)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의 좌상(座像)이 양련연화좌(仰蓮蓮花座)에 자리잡고 섬세한 연화문주형광배(蓮花文舟形光背)를 지녔으며 광배(光背)의 상부(上部)는 방광(放光)을 표시(表示)하여 위로 끌어 올려 左右로 퍼지게 하였는데 그 방광(放光)을 따라 중앙(中央)에 화불(化佛) 1위(一位) 左右에 각각(各各) 3위(三位)씩의 화불(化佛)을 배열(配列)하였다. 그리고 그 左右에 상(像)은 표시(表示)하지 않고 연좌(蓮座)위에 명문(銘文)으로 향좌(向左)에는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 향우(向右)에 북방毗사문천왕(北方毗沙門天王)이라 표기(表記)하고 있다. 제존상(諸尊像)은 최상단(最上段) 방광(放光)의 좌우(左右)에는 향좌(向左)에 지장보살(地藏菩薩) 향우(向右)에는 미륵보살(彌勒菩薩)을 배열(配列)하였다.⁹⁾ 그 하방좌우(下方左右)에는 향좌(向左)가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 향우(向右)가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로 보이며 주존좌우(主尊左右)에는 협시불(脇侍佛)로서 관음보살(觀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배열하였고 그 좌우(左右) 바깥쪽 향우(向右)에 가엽(迦葉), 향우(向右)에 아난(阿難)을 배열하고 있다. 최하단(最下段) 수미단(須彌壇) 좌우(左右)에는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을 배치하였으며 그 좌우(左右) 바깥쪽에 증장천(增長天)과 지국천(持國天)의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배열(配列)하였는데 이들 사천왕상(四天王像)은 적색(赤色)을 채색하였음이 특이(特異)하다. 이 도설(圖說)도 최하단부(最下段部)에는 연화(蓮花)로 장식하게 하고 이 연화(蓮花)에서 발(發)한 연뢰(蓮雷)가 각상(各像) 사이사이에 뻗치게 하고 있다. 각존상(各尊像)이 갖고 있는 지물(持物)은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연뢰(蓮雷)(或은 花枝)에 보병(寶瓶)을 얹어 들고 있으며 대세지(大勢至)·문수(文殊)·보현보살(普賢菩薩)들은 모두가 연뢰(蓮雷)를 들고 지장보살(地藏菩薩)은 보주(寶珠)와 석장(錫杖)을 들어 그 특성(特性)을 나타내고 있다. 미륵보살(彌勒菩薩)은 연화(蓮花)를 들었고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은 장검(長劍)을 들고¹⁰⁾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은 연뢰(蓮雷)를 들고 있다. 가엽(迦葉)은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있으며 아난(阿難)을 합장(合掌)하고 있다.



慶國寺極樂寶殿 木彫幀畫

경국사극락보전 목조정화(慶國寺極樂寶殿 木彫幀畫)

이상(以上)을 요약(要約)해서 말하면 이 정화(幀畫)는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주존(主尊)으로 관음(觀音) 세지(勢至)를 그 협시(脇侍)로 그 이외(以外) 육대보살(六大菩薩)을 포함하는 아미타팔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과 10대제자중(十大弟子中) 가엽(迦葉) 아난(阿難)의 이대제자(二大弟子) 그리고 사천왕(四天王)을 사방(四方)에 배치(配置)한 도설(圖說)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외(以外)에 화불칠위(化佛七位)를 방광(放光)과 더불어 표현(表現)하여 과거칠불(過去七佛)을¹¹⁾ 표현하고 있다.



경국사극락보전 목조정화(慶國寺極樂寶殿 木彫幀畫)

이상(以上) 5점(五點)의 목조정화(木彫幀畫) 이외(以外)에 경북(慶北) 예천(醴泉) 용문사(龍門寺)에 또 하나의 목조정화(木彫幀畫)가 전하나 이를 참고(參考)하지 못하고 후일(後日)로 미루면서 이상(以上) 5점(五點)의 목조정화(木彫幀畫)를 중심(中心)으로 이들 목조정화(木彫幀畫)가 지니는 특성(特性)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 볼까 한다.

二. 목조정화(木彫幀畫)의 내용(內容)과 특성(特性)

용문사(龍門寺)의 자료(資料)를 남겨둔 채 우선 5점(五點)의 목조정화(木彫幀畫)가 지니는 공통성(共通性)을 보면 이들은 모두가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라는데 주목(注目)할 필요(必要)가 있다. 이들 5점(五點)의 목조정(木彫幀)은 그 구도상(構圖像)에서 다소(多少)의 차이점(差異點)을 보이고 있으나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로서의 특성(特性)을 다 같이 지니고 있다는데 주의력(注意力)을 기울일 필요(必要)가 있다. 먼저 이들 정화(幀畫)의 특이성(特異性)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중심(中心)으로 아미타팔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을 배열(配列)하고 있다는 점(點)이다. 5점(五點)의 목조정중(木彫幀中) 대승사(大乘寺) 실상사(實相寺) 경국사(慶國寺)의 것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고 남장사보광전(南長寺普光殿)의 것은 십대보살(十大菩薩), 같은 남장사관음선원(南長寺觀音禪院)의 것은 사대보살(四大菩薩)이다. 그런데 여기 공통적(共通的)인 것은 주존(主尊)의 협시불(脇侍佛)은 모두가 관음(觀音) 세지(勢至)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 아미타(阿彌陀) 팔대보살명(八代菩薩名)은 다행(多幸)히 대승사정화(大乘寺幀畫)에 각기 명칭(名稱)을 부치고 있어 쉽게 구분(區分)이 되어서인데 그에 의하면 아미타팔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은 관음(觀音) 세지(勢至)를 협시(脇侍)로 하고 문수(文殊) 보현(普賢)지장(地藏) 미륵(彌勒) 제장애(除

障) 금강장(金剛杖)등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예(例)는 1776년에 제작(製作)된 천은사(泉隱寺) 아미타도(阿彌陀圖)의 8대보살명(八代菩薩名)과 일치(一致)한다.¹²⁾ 그리하여 18세기를 전후(前後)한 조선후기(朝鮮後期)의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있어 팔대보살(八代菩薩)은 모두가 이 예(例)를 따른 것이라 보아지고 따라서 실상사(實相寺) 경국사(慶國寺)의 팔대보살(八代菩薩)은 모두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장사관음선원(南長寺觀音禪院)의 것은 팔대보살(八代菩薩)은 약(略)하여 사대보살(四大菩薩)로 한 것이라 짐작 되나 보광전(普光殿)의 것은 협시(脇侍)로서의 관음(觀音) 세지(勢至)는 분명(分明)하고 그 하단(下段)의 보살(菩薩)은 문수(文殊) 보현(普賢)으로 짐작되나 다른 보살(菩薩)은 명문(銘文)도 없고 지물(持物)의 특징(特徵)도 알 수 없어 무슨 보살(菩薩)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아미타팔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이면 반드시 참여하는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도 안보이고 팔대보살(八代菩薩)이 아닌 10대보살(十大菩薩)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조선후기아미타도(朝鮮後期阿彌陀圖)의 용례(用例)에서 생각하면 십대보살중(十大菩薩中) 이위(二位)는 대범(大梵) 제석상(帝釋床)으로 생각되나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은 대승사(大乘寺)의 예(例)에서 보면 장검(長劍)을 잡고 있는데 경국사(慶國寺)의 것은 이 같은 지물(持物)의 보살(菩薩)이 보이나 실상사(實相寺)의 것은 없다. 그렇다면 실상사(實相寺)의 것은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으나 천은사(泉隱寺)의 예(例)에서 보면 명문(銘文)으로 밝혀진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은 장검(長劍)을 잡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오히려 실상사(實相寺)의 것은 천은사(泉隱寺)의 예(例)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미타8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은 고려불화(高麗佛畫)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¹³⁾ 이중 상호(相好)가 확실한 것은 관음(觀音)과 지장(地藏) 뿐이며 다만 송미사소장(松尾寺所藏)의 아미타도(阿彌陀圖)는 관음(觀音)과 더불어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의 확실한 상호(相好)를 지니고 있다.¹⁴⁾ 그러나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아미타8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도 조선후기(朝鮮後期)의 것과 같은 8대보살(八代菩薩)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대승사(大乘寺)와 천은사(泉隱寺)의 명문(銘文)에 의해 그 보살명(菩薩名)이 확실한 보살(菩薩)도 상호(相好)를 달리 하고 있는 예(例)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그리하여 아미타8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은 고려시대(高麗時代) 이후(以後)의 신앙적(信仰的) 전통(傳統)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8대보살(八代菩薩)의 배열(配列)은 다소변화(多少變化)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조선후기(朝鮮後期)의 것은 지장보살(地藏菩薩)과 그와 대칭 되는 보살(菩薩)은 대체로 최상단(最上段)에 배열(配列)하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 것은 상단(上段)에 배열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 2단(二段)에 배열하는 경우도 있다.¹⁶⁾ 그리고 조선조(朝鮮朝)가 되면 8대보살(八代菩薩)의 경우에는 그런 예(例)를 찾아볼 수 없으나 양협시(兩脇侍)와 더불어 미타삼존도(彌陀三尊圖)를 배열(配列)할 경우에는 양협시(兩脇侍)를 관음(觀音) 지장(地藏)으로 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즉(卽) 조선초기(朝鮮初期) 것이라 생각되는 무위사(無爲寺) 후불벽화(後佛壁畫)나 선암사(仙岩寺)의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등이 그것이다.¹⁷⁾

경전(經典)에 의한 8대보살(八代菩薩)은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의 8대보살(八代菩薩) 약사경소설(藥師經所說)의 8대보살(八代菩薩), 칠불팔보살경소설(七佛八菩薩經所說)의 8대보살(八代菩薩), 사리불다라니경(舍利佛陀羅尼經)의 8대보살(八代菩薩), 이취경(理趣經)의 8대보살(八代菩薩), 대방광보살문수사리근본의궤경(大方廣菩薩文水師利根本儀軌

經)의 8대보살(八代菩薩), 8대보살만다라경소설(八代菩薩曼陀羅經所說)등의 8대보살(八代菩薩)이 있으나 이중 아미타(阿彌陀)를 주존(主尊)으로 한 8대보살(八代菩薩)은 8대보살만다라경소설(八代菩薩曼陀羅經所說)의 8대보살(八代菩薩)을 들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관음(觀音) 미륵(彌勒) 허공장(虛空藏) 보현(普賢) 금강수(金剛手)(金剛杖) 묘길상(妙吉祥) 제장애(除障礙) 지장(地藏)등의 8대보살(八代菩薩)로 되어있다. 한편 대묘금강경(大妙金剛經)에 의하면 문수(文殊) 보현(普賢) 관음(觀音) 미륵(彌勒) 지장(地藏) 허공장(虛空藏) 금강장(金剛杖) 제장애보살(除障礙菩薩)로 되어있어 전기(前記) 8대보살만다라경(八代菩薩曼陀羅經)에 의한 8대보살(八代菩薩)보다 대묘금강경(大妙金剛經)에 의한 8대보살(八代菩薩)이 조선조후기(朝鮮朝後期)의 아미타8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에 더 가깝다. 그러나 대묘금강경(大妙金剛經)에 의한 8대보살(八代菩薩)은 밀교(密敎)의 존상(尊像)으로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에 배치(配置)되는 보살(菩薩)로 아미타(阿彌陀)를 주존(主尊)으로 하는 보살(菩薩)은 아니다.¹⁸⁾ 그리하여 꼭 경전(經典)에서 아미타8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의 근거(根據)를 찾는다면 8대보살만다라경(八代菩薩曼陀羅經)이 제일 가까운 것이라 하겠으나 묘길상보살(妙吉祥菩薩)과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대신 문수(文殊)와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대체되고 있다. 이는 모르는 하역도 묘길상(妙吉祥)과 허공장(虛空藏)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비교적 널리 알려진 문수(文殊)와 대세지(大勢至)를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日本)의 경우를 보면 고려불화(高麗佛畵)로 알려진 아미타구존도(阿彌陀九尊圖)를 제외(除外)하고는 별존잡기중(別尊雜記中)의 아미타만다라(阿彌陀曼陀羅)등에 아미타8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이 보이는데 여기서의 8대보살(八代菩薩)은 대묘금강경(大妙金剛經)의 8대보살(八代菩薩)과 같고 조선 후기의 것과는 다르다. 그 이외(以外)는 아미타8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이라 할 수 있는 예(例)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천개법사(香川開法寺)의 보관아미타(寶冠阿彌陀)를 중심으로 하는 제존(諸尊)의 판각(板刻)이 이에 가깝다고 할 정도(程度)이다.¹⁹⁾

이상(以上)에서 보면 조선후기(朝鮮後期)의 아미타도(阿彌陀圖)에서 볼 수 있는 8대보살(八代菩薩)은 한국(韓國) 특유(特有)의 것이며 이 같은 전통(傳統)은 비록 그 배열(配列)등이 다소(多少) 바뀌기는 하였으나 고려이래(高麗以來) 아미타신앙(阿彌陀信仰)에 의한 8대보살(八代菩薩)의 신앙적(信仰的)인 전통(傳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8대보살(八代菩薩)을 논(論)할 경우 아미타도(阿彌陀圖)가 아니더라도 8대보살(八代菩薩)을 도설(圖說)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나 약사회상도(藥師會上圖)가 그것이오 비로사나불후불정화(毘盧舍那佛後佛幀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타(餘他)의 8대보살(八代菩薩)과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있어 8대보살(八代菩薩)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 구분(區分)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아미타8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은 그 협시(脇侍)를 관음(觀音) 세지(勢至)로 한다(혹(或)은 관음(觀音)과 지장(地藏))그리고 8대보살중(八代菩薩中)에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이 반드시 포함된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의 경우에는 협시불(脇侍佛)이 문수(文殊) 보현(普賢)이고 8대보살중(八代菩薩中)에 지장보살(地藏菩薩)이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회상도(藥師會上圖)의 경우는 협시(脇侍)가 일광(日光) 월광보살(月光菩薩)이고 8대보살중(八代菩薩中)에 지장(地藏)이 포함되지 않는다.

5점(五點)의 목조정화(木彫幀畵)는 이를 따르고 있어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畵)임이 분

명(分明)하다는 것이다. 대승사(大乘寺)와 실상사(實相寺)의 것은 두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고 남장사보광전(南長寺菩光殿)의 것은 지장(地藏)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나 협시(脇侍)가 관음(觀音) 세지(勢至)임은 분명(分明)하다. 지장(地藏)의 형상을 일반보살형(一般菩薩形)으로 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나 일본(日本)의 아미타8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의 예(例)에서 찾아 볼 수 있고²⁰⁾ 또한 국립박물관소장(國立博物館所藏)의 고려아미타구존도(高麗阿彌陀九尊圖)도 일반(一般) 보살형(菩薩形)을 하고 있는 것처럼²¹⁾ 지장(地藏)을 일반(一般) 보살형(菩薩形)으로 나타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남장사보광전(南長寺菩光殿)의 정화(幀畫)는 제자상십위(弟子像十位)가 가엽(迦葉)을 제외(除外)하고는 모두가 얼핏 보기에 흡사 비구형(比丘形)의 지장(地藏)에 가깝다. 그리하여 이들과 구분(區分) 하기 위하여 일반보살형(一般菩薩形)으로 지장(地藏)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도 생각된다. 남장사관음선원(南長寺觀音禪院)의 것은 협시(脇侍)는 관음(觀音) 세지(勢至)로 하고 있으나 8대보살(八代菩薩)을 생략하면서 지장(地藏)을 제외(除外)한 것이라 보아진다.

둘째 아미타도(阿彌陀圖)에도 석가(釋迦) 10대제자(十大弟子)가 도설(圖說)된다는 것이다.

즉(卽) 대승사(大乘寺)의 것은 6대성문제자상(六大聲聞弟子像) 남장사보광전정화(南長寺菩光殿幀畫)는 10대성문제자(十代聲聞弟子) 실상사(實相寺)와 남장사관음선원(南長寺觀音禪院), 경국사(慶國寺)의 것은 가엽(迦葉)과 아난(阿難)의 두 제자상(弟子像)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승사(大乘寺)의 것은 가엽(迦葉) 아난(阿難) 사리불(舍利佛) 목견연(目犍連) 부루나(富樓那) 수보제(須菩提)등 육대제자상(六大弟子像)을 비구성문형(比丘聲聞形)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이 석가십대제자(釋迦十大弟子)라는 것은 각성문상(各聲聞像)에 표기하고 있는 명문(銘文)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남장사보광전(南長寺菩光殿) 것의 10대성문상(十代聲聞像)은 명문(銘文)은 없으나 대승사(大乘寺)의 것과 비교(比較)하여 그 형상(形狀)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10대제자상(十大弟子像)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이같이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을 배열(配列)하는 용례(用例)는 일반(一般)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에서도 8대보살(八代菩薩)을 배열(配列)할 경우에는 모두 따르고 있다. 즉(卽) 천은사(泉隱寺)의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는 육대제자(六大弟子), 신록사(神勒寺)의 것은(1900) 8대제자(八代弟子), 쌍계사대웅전아미타정(雙磎寺大雄殿阿尾陀幀) 이점(二點)(1781)은 10대제자(十大弟子)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직지사대웅전(直指寺大雄殿)의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는(1774)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을 18위(十八位)나 배열(配列)하고 있어 주목(注目)을 끌게 한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미타구존도(彌陀九尊圖) 등에서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이 배열(配列)되고 있지 않으나 법은사소장(法恩寺所藏)의 미타삼존도(彌陀三尊圖)(1330)에서는 가엽(迦葉) 아난(阿難)으로 보이는 제자상(弟子像) 2위(二位)를 관음(觀音) 세지(勢至) 협시(脇侍)의 상방(上方)에 배열(配列)하고 있음을 보아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미타도(彌陀圖)에 제자상(弟子像)을 배열(配列)하는 용례(用例)를 보이고 있다.²²⁾ 한편 조선초기(朝鮮初期)것으로 알려진 무위사후불벽화(無爲寺後佛壁畫)에도 아미타삼존불(阿彌陀三尊佛) 상방(上方)에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 6위(六位)를 배열(配列)하고 있다.

이상(以上)에서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이 배열(配列)됨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서 조선초기(朝鮮初期)를 거쳐 조선후기(朝鮮後期)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이들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이 고려삼존도(高麗三尊圖)에서 가엽

(迦葉) 아난(阿難)을 배열(配列)하고 있고 또한 대승사(大乘寺)의 명문(銘文)에서 석가(釋迦) 10대제자명(十大弟子名)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은 석가(釋迦) 10대제자(十大弟子)를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직지사아미타도(直指寺阿彌陀圖)의 경우는 18위(十八位)의 상(像)을 나타내고 있어 이는 어떤 성문(聲聞)을 나타낸 것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전(經典)의 근거(根據)가 석가(釋迦) 10대제자(十大弟子)를 포함한 보다 많은 성문상(聲聞像)을 아미타도(阿彌陀圖)에 도설(圖說)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卽) 무량수경(無量壽經)의 사십팔원중(四十八願中) 성문무수(聲聞無數)의 원(願)이 그것이 아닌가한다.²³⁾ 무량수경(無量壽經)은 광명무량(光明無量)과 수명무량(壽命無量)을 설(說)하고 난 다음 이어 성문무수(聲聞無數)와 권속장수(眷屬長壽)를 설(說)한다.

여기 성문무수(聲聞無數)와 권속장수(眷屬長壽)란 그 앞에서 설(說)한 광수이덕(光壽二德)의 일차적(一次的)인 구체화(具體化)라 할 수 있고 이는 피안(彼岸)의 현실(現實)이 되는 것이다. 즉(卽) 일절존재(一切存在)를 참으로 용인(容認)하는 광명(光明)은 무수(無數)의 성문(聲聞)을 감득(感得)시키고 동체(同體)를 내감(內感)하는 대비(大悲)는 그 대로가 권속(眷屬)의 수명(壽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타초회(彌陀初會)의 성중(聖衆)이란 바로 이 이원(二願)의 성취(成就)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다시 말하면 십방중생(十方衆生)의 왕생(往生)에 앞서 무량(無量)의 성문(聲聞)이 있다고 함은 광수이덕(光壽二德)의 위대함을 나타냄과 동시(同時)에 중생구제(衆生救濟)의 가능성(可能性)을 암시(暗示)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있어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은 이 같은 미타정토(彌陀淨土)에 있어 성문(聲聞)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직지사미타도(直指寺彌陀圖)의 18위(十八位)의 성문제자상(聲聞弟子像)은 그를 보다 구체적(具體的)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고 여타(餘他)의 것은 석가(釋迦) 10대제자(十大弟子)로 그를 대신(代身)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이상(以上)에서 보면 석가(釋迦) 10대제자상(十大弟子像)은 반드시 석가관계도설(釋迦關係圖說)에 국한하여 도설(圖說)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석가(釋迦) 10대제자(十大弟子)라 할지라도 보다 널리 확대(擴大) 해석(解釋)되어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있어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의 성문(聲聞)으로도 도설(圖說)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事實)은 지금까지 한국미술사학회(韓國美術史學會)의 커다란 숙제(宿題)로 되어 왔던 석굴암(石窟庵) 본존불(本尊佛)의 성격(性格)을 구명(究明)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석굴암(石窟庵)의 본존불(本尊佛)이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라고 오래 전(前)부터 여러가지 방증자료(傍證資料)에 의해 주장(主張)하여 온 황수영박사(黃壽永博士)의 연구업적(研究業績)에 대(對)해서 반론(反論)을 제기(提起)하는 가장 큰 근거(根據)가 되어 왔던 것이 이 10대제자상(十大弟子像)이기 때문이다.

석굴암(石窟庵)의 제존(諸尊)은 전실(前室)에 팔부중(八部衆) 그 안쪽에 금강역토(金剛力士) 2위(二位) 그 안쪽에 사천왕상(四天王像) 그리고 굴(窟)속에 중앙(中央)에 본존불(本尊佛)을 봉안(奉安)하고 주위에 입구(入口)에서부터 제석(帝釋) 대범(大梵) 양대보살(兩大神菩薩) 그리고 10대제자상(十大弟子像), 10대제자상(十大弟子像)을 반(半)으로 나눈 중간(中間)에 십일면관음보살(十一面觀音菩薩)이 위치(位置)하고 천장 주위에는 10개(十個)의 감실(監室)이 설치되고 그 속에 작은 팔위(八衛)의 보살상(菩薩像)과 11위(十一位)의 나한상(聲聞像)을 안치(安置)하였다. 그런데 이들 제상(諸像)의 배치(配置)를 평

면(平面)으로 보면 지상(地上)(八部衆) 지거천(地居天)(四天王 帝釋天) 공거천(空居天)의 초선천(初禪天)(大梵) 그리고 그 안쪽에 본존(本尊)을 중심(中心)한 불국세계(佛國世界)가 전개(全開)되고 있는데 이는 흡사 불자(佛者)의 세계관(世界觀)에 의한 수미산(須彌山)과 극락세계(極樂世界)를 표현(表現)하고 있는 것 같아 본존(本尊)을 아미타(阿彌陀)로 하는 미타(彌陀)의 국토(國土)를 상징(象徵)하고 있는 것이 석굴암(石窟庵)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점(點) 후면(後面)의 11면관음보살(十一面觀音菩薩)의 배치(配置) 등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과제(研究課題)로 남겨두거니와 아무튼 석굴암(石窟庵)의 제존상중(諸尊像中) 10대제자상(十大弟子像)이 배열(配列)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석굴암(石窟庵)의 본존(本尊)이 아미타(阿彌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술(前述)한대로 우리 나라의 아미타도(阿彌陀圖)에는 고려이후(高麗以後) 석가(釋迦) 10대제자상(十大弟子像)이 도설(圖說)되어진 예(例)를 찾아 볼 수 있고 그 전통(傳統)은 더 멀리 신라시대(新羅時代)에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는 아미도(阿彌圖)에 사천왕(四天王)과 제석(帝釋) 대범(大梵)이 배열(配列)되고 있다는 점(點)이다. 즉(卽) 실상사(實相寺)의 것은 이들 존상(尊像)을 배열(配列) 하지 않았으나 남장사(南長寺)의 것 2점(二點)과 경국사(慶國寺) 대승사(大乘寺)의 것은 모두가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배열(配列) 하고 있으며 특(特)히 대승사(大乘寺)의 것은 사천왕(四天王) 이외(以外)에 제석(帝釋) 대범(大梵) 일광천자(日光天子) 월광천자(月光天子) 등의 천상(天像)과 난타용왕(難陀龍王) 발난타용왕(跋難陀龍王) 등의 성중(聖衆)을 배열(配列)하고 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미타삼존도(彌陀三尊圖) 구존도(九尊圖)등에서는 4천왕(四天王)은 물론(勿論) 어떤 천상(天像)이나 신장상(神將像)을 배열(配列)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용례(用例)는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러서 이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것도 미타삼존불(彌陀三尊佛)의 경우는 대체로 4천왕(四天王)이나 어떤 다른 신장(神將)을 배열(配列)하지 않은 예(例)를 허다히 찾아 볼 수 있다.²⁴⁾ 무위사(無爲寺), 송광사(松廣寺), 대흥사(大興寺), 선암사(仙岩寺)등의 미타삼존불(彌陀三尊佛)이 그것이며 실상사(實相寺)의 미타목조정(彌陀木彫幀)은 구존도(九尊圖)로서 4천왕(四天王)을 배열(配列)하지 않는 예(例)의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미타도(彌陀圖)에는 4천왕(四天王)등의 신중상(神衆像)이 배열(配列)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존(現存) 고려시대(高麗時代)것으로 알려진 미타관계도설(彌陀關係圖說)은 그 어느 하나도 4천왕(四天王)등의 신중(神衆)을 도설(圖說)하고 있지 않으나 고려후기(高麗後期)에는 특(特)히 신중신앙(神衆信仰)이 성행(盛行)하였다는 사실(事實)을 미루어 볼 때²⁵⁾ 고려미타도(高麗彌陀圖)에도 사천왕(四天王)등이 배열(配列)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얼핏 생각하면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있어 4천왕(四天王)이 배열(配列)되는 것은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석가(釋迦) 10대제자(十大弟子)가 배열(配列) 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이 아미타도(阿彌陀圖)에 4천왕(四天王)이 배열(配列)될 수 없다는 저항감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아미타도(阿彌陀圖)는 아미타정토(阿彌陀淨土) 즉(卽) 극락세계(極樂世界)를 묘사(描寫)한 것이며 그 세계(世界)는

『其國土 無須彌山及金剛鐵 圍一切諸山 亦無 大海小海鷄渠井谷 佛神力故 欲見則現
(기국토 무수미산금강철 위일절제산 역무 대해소해계거정곡불신역고 육견즉현
(亦無地獄餓鬼畜生諸難之超 亦無四時春夏秋冬 不寒 不熱 常知調適)
역무지옥아귀축생제난지초 역무사시춘하추동 불한 불열 상지조적)

하기 때문에²⁶⁾ 즉(卽) 극락정토는 수미산이나 금강철위산 같은 산이 없고 바다나 강 시내나 웅덩이도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싶을 때에는 부처님의 초인적인 신력에 의해 곧 나타나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국토에는 지옥 아귀 축생 등의 나쁜 경계가 없고 사철의 계절도 없이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항상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수미산(須彌山)이 없으므로 4천왕(四天王)이 있을 수 없고 선악(善惡)의 경계(境界)가 없으므로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서의 4천왕(四天王)의 기능(機能)도 필요(必要)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극락정토(極樂淨土)의 광경(光景)을 묘사(描寫)한 것이 아미타도(阿彌陀圖)라고 한다면 4천왕(四天王)등의 도설화(圖說化)는 경전상(經典上)의 근거(根據)와는 상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량수경(無量壽經)은 이어서 다시 이르기를

『爾時阿難 白佛言 世尊 若彼國土 無須彌山 其四天王及忉利天 依何而住 佛語阿難 第三
燄天

『이시아난 백불언 세존 약피국토 무수미산 기4천왕급도리천 의하이주 불어아난 제삼
영천

乃至色究竟天 皆依何住 阿難白佛 行業果報 不可思議 諸佛世界 亦不可思議 其諸衆生
功德

내지색구경천 개의하주 아난백불 행업과보 불가사의 제불세계 역불가사의 기제중생
공덕

善工 往行業之地 故能爾耳』

선공 왕행업지지 고능이이』

즉 세존이시여 만약 그 불국토에 수미산이 없다면 그 산에 있을 4천왕이나 도리천은 어디에서 삽니까. 아란야 수미산 상공에 있는 아마치이나 색구경천은 모두 어디에 사느냐 하니²⁷⁾ 세존이시여 그들은 저마다 그 행업에 의해서 얻은 과보 그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거기서 합당한 천계에 살고 있습니다. 행업으로 얻어진 과보의 불가사의한 힘이라면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불국토에 사는 중생들은 일찍이 자기가 사는 공덕과 선업에 의해 나타난 곳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미산이 없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미타도(彌陀圖)에 있어서의 4천왕(四天王)등의 제천상(諸天像) 및 신중(神衆)등은 단순히 수미산(須彌山)의 주재자(主宰者)로서의 4천왕(四天王)이나 호법선신(護法善神)의 기능(機能)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극락세계(極樂世界)에 일찍이 자기가 쌓은 공덕(功德)과 선업(善業)에 의해 나타난 곳에 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논술(論述)은 4천왕(四天王) 등이 아미타도설(阿彌陀圖說)에도 도설(圖說)되어질 수 있다는 경전(經典)에서의 근거(根據)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으나 현존(現存) 조선후기(朝鮮後期)의 아미타도(阿彌陀圖)에서의 4천왕(四天王)등의 제신중상(諸神衆像)을 과연 이 같은 경전(經典)의 해석에 의해 도설(圖說)하고 있는지는 의문을 남긴다. 왜냐하면 사천천왕(四天天王)이나 제석(帝釋) 대범(大梵)등의 배열(配列)의 위치(位置)나 그 상용(像容)등이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등과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사파세계에서의 석가설법도(釋迦說法圖)란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이 같은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에서의 사천왕(四天王) 및 여타(餘他)의 신중상(神衆像)은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서의 기능(機能)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에서의 사천왕(四天王)등과 아미타도(阿彌陀圖)에서의 사천왕(四天

王)들은 적어도 경전상(經典上)의 해석에 따르면 달라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朝鮮後期)의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있어서의 사천왕(四天王)등의 제신중상(諸神衆像)은 이들이 아미타도(阿彌陀圖)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경전상(經典上)의 해석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를 일이나 그 구도상(構圖上)에서는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의 용례(用例)를 따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미타도(阿彌陀圖)에도 사천왕(四天王) 및 제천상(諸天像)과 신중(神衆)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목조정화(木彫幀畫)가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特徵)은 제존상(諸尊像)의 사이사이에는 모두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어 연화세계(蓮花世計)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점(五點)의 정화(幀畫)가 모두 그리하나 특(特)히 대승사(大乘寺)의 것과 남장사관음선원(南長寺觀音禪院)의 것은 도설(圖說)의 최하방(最下方)에 큰 연(蓮)꽃을 조각하고 그 줄기가 각 존상(尊像)의 사이 사이에 뻗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야말로 연화세계(蓮花世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연꽃은 구품연대(九品蓮臺)를 표현(表現)한 것임을 대승사(大乘寺)의 목조정화(木彫幀畫)가 잘 일러주고 있다. 구품연대(九品蓮臺)란 극락정토(極樂淨土)에 왕생(往生)하는 자(者)의 행업(行業)에 따라 구종(九種)의 정토(淨土)가 있으며 그 구종(九種)의 정토(淨土)에 있어서의 구연대(九蓮臺)의 연화(蓮花)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목조정화(木彫幀畫)에 이 같은 구품연화(九品蓮花)가 조각되고 있다는 것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로써 아미타(阿彌陀)의 정토(淨土)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란 본디 화엄경제팔화장세계품(華嚴經第八華藏世界品)에 설(說)해져 있는 것으로 이는 비로사나여래(毘盧舍那如來)가 구원(久遠)의 옛날 세계해미좌수겁(世界海微座數劫)에 있어 보살(菩薩)의 행(行)을 닦을 적에 하나 하나의 겁중(劫中) 세계해미좌수(世界海微座數)의 불(佛)에 친근(親近)하여 하나 하나의 불소(佛所)에 정수(淨修)하는 세계해미좌수(世界海微座數)의 대원(大願)이 엄정(嚴淨)하는 세계(世界)이다. 그리고 그 세계(世界)의 구조장엄(構造莊嚴)등에 대해서는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에 널리 설(說)하고 있으나 대체로 그 세계(世界)는 연화(蓮花)의 소성(所成)이라 설(說)하고 있다.²⁸⁾ 그런데 화엄경(華嚴經)에 바탕을 둔 이같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는 다시 새로운 전개(展開)를 가져오게 되는데 즉(卽) 범강경소설(梵網經所說)의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는 천엽(千葉)의 대연화중(大蓮花中)에 함장(含藏)되어진 세계(世界)를 말하고 여기 일엽(一葉)을 일세계(一世界)로 하여 천세계(天世界)를 설(說)한다. 그리고 이 천엽(千葉)의 세계(世界) 그 하나 하나의 불(佛) 이것이 화신(化身)이며 천백억화신석가(千百億化身釋迦)가 그것이다. 여기서도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는 천엽(千葉)의 대연화(大蓮花)로 이룩된다.²⁹⁾ 그리고 이어 이와 같이 연화(蓮花)로 엄정세계(嚴淨世界)를 표현(表現)하고 있음을 섭대승논석십오(攝大乘論釋十五)에서는 연화(蓮花)로써 대승소원(大乘所願)의 법계진여(法界眞如)를 유현(喻顯)한 것이라 하고 있다. 즉(卽) 이는 연화(蓮花)는 비록 진흙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음을 상징(象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천친(天親)의 왕생론(往生論)등에 의하면 아미타(阿彌陀)의 정토(淨土)를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 하고 있으며 원효(元曉)는 그의 유심안락도(遊心安樂圖)에서 만약 일승(一乘)에 의한다면 극락정토(極樂淨土)는 화장세계해(華藏世界海)에 속(屬)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³⁰⁾ 이상(以上)에서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란 화엄경(華嚴經)에 바탕한 화엄경(華嚴經)의 세계(世界)에 그 근원(根源)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다

시 이는 아미타(阿彌陀)의 극락세계(極樂世界)를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 하게 되는 그 경위를 살필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注目)을 끄는 것은 한국(韓國)의 정토신앙(淨土信仰)은 일찍부터 화엄신앙(華嚴信仰)과의 깊은 관련성을 간과(看過)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卽) 의상(義湘)의 정토신앙(淨土信仰)이 그리하였고³¹⁾ 의상(義湘)이 창건(創建)한 부석사(浮石寺)가 화엄도장(華嚴道場)으로서 그 종지(宗旨)를 분명(分明)히 하였으나 그 본전(本殿)을 무량수전(無量壽殿)으로 하고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본존(本尊)으로 하고 있음도 그를 일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 전(傳)하는 조선후기목조정화(朝鮮後期木彫幀畫)로서의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가 보광전(普光殿)의 후불정화(後佛幀畫)로 봉안(奉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事實)도 역시 화엄신앙(華嚴信仰)과 정토신앙(淨土信仰)의 상호(相互) 접촉(接觸)관계에서 이해(理解)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들 조선후기(朝鮮後期)의 목조아미타정화(木彫阿彌陀幀畫)에서의 연화(蓮花)는 일단 대승사(大乘寺)의 것에서 보는 것처럼 아미타정토(阿彌陀淨土)의 구품연화대(九品蓮花臺)를 표현(表現)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연화(蓮花)의 정토세계(淨土世界)는 화엄(華嚴)의 화장세계(華藏世界)에 속(屬)하는 것이라 사상적(思想的)인 뒷받침이 있는 것이라 보아진다.

四. 결어(結語)

현존(現存)하는 한국(韓國)의 목조정화(木彫幀畫)는 모두가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이다. 그리고 그 구도(構圖)는 첫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주존(主尊)으로 하고 그 주위에 아미타팔대보살(阿彌陀八大菩薩), 10대제자상(十大弟子像), 4천왕(四天王), 기타(其他)의 신중상(神衆像)을 배열(配列)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제존상(諸尊像)은 생략되어 4대보살(四代菩薩)이 2대보살(二大菩薩) 4대보살(四大菩薩)이 되고 10대제자(十大弟子)는 6대제자(六大弟子) 2대제자(二大弟子)등이 된다. 2대보살(二大菩薩)이 될 경우에는 관음(觀音) 세지(勢至) 혹(或)은 관음(觀音) 지장(地藏)으로 하고 2대제자(二大弟子)일 경우에는 가엽(迦葉) 아난(阿難)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천왕(四天王)과 제신중상(諸神衆像)은 아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아미타도설(阿彌陀圖說)의 전통(傳統)은 고려(高麗)에서 조선초기(朝鮮初期)를 거쳐 조선후기(朝鮮後期)로 이어진 것이라 보아진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新羅時代) 석굴암(石窟庵)의 제존상조각(諸尊像彫刻)도 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각존상(各尊像)의 사이사이의 연화(蓮花)로 장식하여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로서의 극락정토(極樂淨土)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구도(構圖)는 회화(繪畫)로서의 일반적(一般的)인 아미타정화(阿彌陀幀畫)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데 더욱 주목(注目)을 끌게 한다. 목조정화(木彫幀畫)는 회화(繪畫)에 비(比)하여 입체감(立體感)을 살리고 있다는 특징(特徵)을 지닌다고 하겠으나 현존(現存)아미타목조정화(阿彌陀木彫幀畫)는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입체상(立體像)을 표현(表現) 하고 하였다는데 그 특성(特性)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승사(大乘寺)의 것이 그 대표적(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卽) 수미단(須彌壇)의 표현(表現)과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표현(表現)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아미타정토(阿彌陀淨土)의 입체적(立體的)인 표현(表現)으로서의 목조아미타정화(木彫阿彌陀幀畫)는 석굴암(石窟庵) 제존상(諸尊像)의 입체적(立體的)인 표현(表現)의 퇴화(退化)에서 온 것이라 믿어지고 따라서 이

들 목조정화(木彫幀畫)의 예(例)에서 석굴암(石窟庵) 본존불(本尊佛)이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로 고증(考證)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한국(韓國)의 아미타신앙(阿彌陀信仰)은 화엄신앙(華嚴信仰)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事實)이나 목조정화(木彫幀畫)에서도 그 같은 소식(消息)을 전(傳)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진다. 즉(卽) 5점(五點)의 목조정화중(木彫幀畫中) 2점(二點)이 비로사나여래(毘盧舍那如來)를 주존(主尊)으로 한 보광전후불정화(寶光殿後佛淨畫)란 점(點)이 그것이다.

- 1) 實相寺藥水庵木彫幀畫 『文化財大觀』寶物篇 中卷, 文化財管理局
- 2) 阿彌陀八大菩薩의 경우 日光菩薩이 포함되는 例는 아직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日光菩薩은 寶冠에 日光이 부착되어 있음이 通例이나 여기서는 그같은 特徵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 3) 前掲註 ①, ② 參照
- 4) 泉隱寺 阿彌陀幀畫, 大乘寺의 木彫阿彌陀幀畫에 八代菩薩이 配列되고 그 八代菩薩은 각기 銘文을 남기고 있어 그 확실한 菩薩名을 알 수 있다.
- 5) 여기서는 삼륜만 表示하고 있으나 이는 地輪 水輪 火輪 風輪 空輪의 輪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 五輪은 元輪周遍하여 모자람이 없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五輪은 須彌壇 구성의 要素가 된다.
- 6) 觀音, 勢至, 文殊, 普賢, 地藏, 彌勒, 金剛藏, 除障碍菩薩
- 7) 이같은 極樂淨土의 九品을 표기하고 있는 銘文은 이 幀畫가 阿彌陀圖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8) 文甲株, 『木彫佛幀의 一例』, 考古美術 第9卷 第11號에서는 같은 佛典內에 있는 八相圖와 같은 時代의 것으로 보고 이 八相圖의 銘文이 光緒 13年(1887)으로 되어 있어 이 木彫幀도 19世紀 末期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 9) 地藏菩薩의 相對편은 彌勒菩薩로 함이 銘文있는 幀畫에서 分明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10) 除障碍菩薩이 長劍을 들고 있음은 大乘寺幀畫의 銘文에서 알 수 있다.
- 11) 阿彌陀圖說의 上方에 圖說한 化佛이 過去佛이란 것은 大乘寺幀畫 上方에 銘文으로 過去佛인 毘波尸佛을 表現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 12) 泉隱寺의 阿彌陀圖에서도 各尊像의 名稱을 銘文으로 밝히고 있어 八代菩薩名을 알 수 있다.
- 13) 國立博物館 彌陀九尊圖, 美國 샌프란시스코 東洋美術館 阿彌陀九尊圖, 日本東京藝術大學 阿彌陀九尊圖, 日本觀福寺 阿彌陀九尊圖, 根津美術館阿彌陀九尊圖, [高麗佛畫] 韓國의 美①, 中央日報 季刊美術, 1981.
- 14) 前掲註 參照
- 15) 朝鮮後期阿彌陀圖中 八代菩薩의 銘文이 있는 것은 泉隱寺와 大乘寺의 것인데 이 兩者는 銘文에 依해 확실한 菩薩도 相好를 달리 하고 있다.
- 16) 東京藝術大學의 것은 地藏菩薩이 最下段 向左, 錢阿寺의 것은 最上段 向左이며 美國샌프란시스코東洋美術館것은 第二段 向左이다.
- 17) 『高麗佛畫』 參考佛畫篇 韓國의 美⑦, 中央日報 季刊美術. 1981. 拙著 『韓國佛畫의 研究』 調查資料篇,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0
- 18) 『望月佛教大辭典』 八代菩薩條.
- 19) 『日本の美術』 12 No.43 淨土教畫 至文堂
- 20) 『日本 仁和寺 別尊雜記의 阿彌陀八大菩薩中の 地藏』 日本の美術 12, 至文堂.
- 21) 國立博物館所藏 魯英筆의 阿彌陀九尊圖에서도 地藏菩薩像이 比丘形이 아니라 一般菩薩像과 거의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 22) 『高麗佛畫』 韓國의 美⑦, 中央日報 季刊美術. 1981.
- 23) 『淨土三部經』·『無量壽經』, 拙著, 『淨土思想』 p. 77-78, 한겨레出版社, 1980
- 24) 拙著, 『韓國佛畫의 研究』 調查資料篇,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0.
- 25) 高麗史에 依하면 高麗後期에는 神衆道場 華嚴神衆道場등의 神衆信仰儀式이 자주 행해지고 있었음이 그것이다. 拙著, 『韓國佛教儀禮의 研究』. 高麗時代의 佛教儀禮篇, 隆文館 東京, 1976.
- 26) 『淨土三部經』·『無量壽經』 岩波文庫版 參照.
- 27) 前掲註 參照
- 28) 『新華嚴經』 第八華藏世界品 大正藏經卷 36, 721.
- 29) 『大正藏經』 卷 24, 997.
- 30) 『元曉全集』 遊心安樂道, 佛教同人會編.
- 31) 趙明基, 『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義湘篇, 新太陽社.